

1. 열심히 하는데, 왜 신앙은 점점 무거워질까?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던 순간.. 신앙생활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설렘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곧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 십일조 드리기, 기도 열심히 하기, 봉사하기, 착하게 살기, 구별되게 살기, 친절하게 살기... 이 모든 결심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실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헌신했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물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는 모두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수단이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증명이 된 신앙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고, 결국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 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왕궁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보다, 얼마나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0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네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섬기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했는가?” 이 질문만 붙들고 살다 보면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봅시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감정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 _____

-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실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나요?

→ _____

- 예배, 기도, 말씀, 봉사 등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보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 _____

-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처럼, 지금 내 삶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영역은 어디인가요?(예, 관계, 신앙, 사명, 가정, 미래, 죄의 문제 등)

→ _____

- ‘내가 하려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로 나 자신을 확인하려 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신앙을 성과처럼 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했고, 기도했고, 헌신했지만 그 중심에 주님보다 나 자신이 있었던 순간들을 용서해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게 하시고 그 자리를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